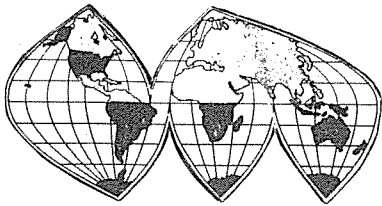


石油 地政學(上)



— 美下院 에너지·資源 委員會 報告書 —

玄源福訳〈科学저널리스트〉

◆ … 다음은 80년 11월 발표된 美上院 에너지資源委員會의 「石油의 地政學」報告를 간추린 것이다. <편집자> …………… ◆

이 報告書의 목적은 에너지문제의 성격을 규명하고 그 근원적인 원인을 분석하며 점차 더해가는 에너지危機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石油의 地政學研究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결론은 다음 6개항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페르샤灣과 北아프리카의 石油輸出高는 앞으로 10년간 실질적으로 增加할 것 같지 않다.

페르샤灣과 北아프리카의 產油國들은 나라마다 내부적으로 產油量을 줄이든가 또는 적어도 生産量을 고정시키려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 이런 압력에는 생산된 石油의 바렐당 수입을 늘리게 될 油價引上, 中東 및 해외의 石油收入投資를 위한 機會減少, 中東 石油埋藏量이 점차 고갈된다는 사실의 인식등이 포함된다. 中東 產油國들은 경제개발에 쓸 자금조달을 위해 더 많은 석유를 팔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들 국가는 덜 팔므로써 값을 올려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런 產油量制限 압력이 커감에 따라 세계시장에 증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이것은 이라크와 이란간의 분쟁이 해결된다고 해도 石油 消費國가들은 세계 석유시장의 절박한 사정을 완화하는 문제를 페르샤灣 產油國에게 기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란과 이라크 간의 분쟁에 앞서 있었던 것과 같은 잠정적인 생산과잉은 때때로 생길 수도 있는 것이지만 금세기의 나머지 대부분의 기간을 두고 석유시장은 物량이 딸릴 것이다. 시장의 물량이 계속 딸린다는 것은 1973년 말해서 큰 교란이 일어날 때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증대한 영향을 미칠다는 뜻이 된다.

석유자원을 보존해야 한다는 점증하는 압력은 다른 하나의 증대한 뜻을 내포하고 있다.

소비 국가들이 석유 소비량을 줄일 때 산유국들도 그만큼의 산유량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세계의 유가를 인하시키려는 희망에서 수입을 줄이려던 消費國의 노력은 성공을 거둘 것 같지 않다. 石油輸入減量이 갖는 국가안보적 가치는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것보다 훨씬 적은 것 같다. 따라서 美國과 우방들에게 공급 교란의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비상계획과 석유비축에 더 주력하고 재원을 기울이도록 권장해야 할 것이다.

2) 이라크와 이란간의 분쟁이 빠른 시일안에 해결된다고 해도 앞으로 10년 내에 커다란 석유공급 교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0년간 세계는 2번의 큰 석유공급 교란을 경험했다. 80년대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교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10년전보다 더욱 높다.

이란과 이라크간의 현재의 적대관계는 中東石油에 의존하고 있는 美國과 그밖의 공업국가들이 당면한 문제의 直接性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 분쟁은 두 나라로부터의 수출을 완전히 줄여 버렸고 그 결과 日當 3백 80만바렐의 석유의 손실을 가져왔다. 전투는 지금까지 두 나라에 국한되었으나 다른 產油國까지 번져 日當 1천 8백만바렐에 달하는 全페르샤灣 지역의

석유 수출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히 남아 있다.

현재의 분쟁은 中東지역에 대해 적대 관계가 터지기 전보다 오히려 더 큰 불안을 남길 것이다. 이란이 경쟁의 우위에 선다면 호메이니 정부는 더욱 열렬하게 인접국가들에 대한 이란 혁명의 수출노력을 새로이 할 것 같다. 한편 이라크가 승리한다면 이것도 똑같은 불안을 가져올 것이다. 이라크의 승리는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에 대해 이라크의 영향력을 확대시킬 것이며 따라서 지역적인 불안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한편 이란의 후퇴는 정부의 國家維持 능력을 약화시켜 궁극적으로는 이란의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어떤 형태의 휴전과 잠정적인 해결이나 또는 이 持久戰에서 비긴다는 것이 어느 한쪽의 승리보다 가능성이 큰 것 같다. 현재의 분쟁으로 생긴 적의는 앞으로 적대관계를 격화시키거나 끊임없는 위협을 제공할 것이다. 이 지역 국가들이 전쟁관계에 있는 집단 중 어느 한쪽에 가담할 때 아랍의 분열은 더 격화되어 앞으로 더욱 불안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이라크와 이란간의 분쟁은 국지적인 불안과 지역적인 분쟁의 패턴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아랍국가 원수 중 반수이상인 13명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선임자들을 강제로 제거하고 권력을 잡았다. 지난 15년간 아랍과 이스라엘 분쟁 외에도 아랍간에 13번에 걸친 격전이 있었다. 이집트와 이스라엘 평화조약은 中東의 전반적인 安定에 크게 이바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의 분쟁으로 악화된 조직적인 문제들은 앞으로 상당한 기간중 中東을 계속 불안하게 만들 것이다.

3) 石油은 주요 産油國家들의 수중에서 정치 도구화 되었다.

석유는 이제 단순한 경제적인 상품은 아니다. 석유는 주요 産油國家들의 수중에서 정치수단의 원천이 되었다. 특히 中東국가를 포함한 OPEC 산유국들은 모두가 실질적으로 한 두번은 비경제적인 목적을 추궁하기 위해 석유를 이용했다.

석유는 美國·프랑스·西獨·이탈리아·日本 및 브라질에서 최신武器 시스템과 군사적인 응용방법을 가진 기술을 거래하도록 만드는데 이용되었다. 석유는 정유소와 석유화학공장 건설이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는 구득하기 어려운 그밖의 산업을 포함한 경제적 양보를 획득하는데 이용되었다. 石油은 특히 아랍과 이스라엘紛爭과 이집트와 이스라엘 平和協商을 포함하여 공업국가 및 제3세계국가의 外交政策에 영향을 주는 데 이용되었다. 또 석유는 美國 정부가 戰略石油 備蓄高를 채울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일과 같은 國內政策에도 영향을 주는데 이용되었다.

世界石油市場의 梗塞은 정치·경제 및 그밖의 힘의 소산이지만 석유를 정치적인 힘으로 만든 가장 중요한 單一要因이다. 세계 석유시장의 불안과 절박성으로 소비 국가들은 석유에 우선적으로 접근하는 대신 정치적 대가를 자진하여 치루어야만 했다.

石油會社의 중개없이 産油國 정부와 소비국 정부간의 直去來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산유국들의 석유에 대한 統制力을 강화시킨 또 다른 하나의 중대한 사태 발전이다. 1973년에는 世界石油去來量의 90%를 민간 石油企業이 판매했다. 1979년에 이르러 이 비율은 50% 이하로 줄어 들었다. 현재 中東國家들은 더 많은 外國政府들과 直去來하고 있으며 산유국들은 훨씬 쉬운 去來 방법으로 非經濟的인 양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4) 現行政策에 큰 변동이 없는限 앞으로 20년간 不足한 原油供給量을 확보하기 위해 消費國政府간의 競爭이 深化될 수 있을 것이다.

石油消費量을 줄이고 國內生産을 늘이며 代替燃料使用을 촉진하는 現行的 모든 계획이 成功한다고 해도 工業國家들은 今世紀의 나머지 기간과 아마도 다음 世紀의 상당기간까지 不安하고 믿을 수 없는 供給源으로부터 수입되는 石油에 크게 依存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外國의 石油供給源에 우선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消費國가 政府間 競爭은 深化될 것 같다. 이런 경쟁은 결국 油價를 더 올리게되고 더 많은 政治·軍事的인 양보를 하게 만들 것이다.